가정예비

04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성경 누가복음 7:11-17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집 생명 주께 있네(은혜의 찬양 285장)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2 예수는 나의 힘이요(찬송가 93장)

-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 2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 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 4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한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말씀 읽기 누가복음 7:11-17

-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들
-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일어나라 하시매
-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 17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본문 배경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근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많은 마을 사람이 그 여성과 함께 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13절)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를 위로하고 죽은 아들의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자, 예수님은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1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고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관찰

-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무엇을 보셨나요?(11-12절)
 - 답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

해설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12a절). 죽은 사람은 그 성에 사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불가 상태를 가리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예수님, 함께한 제자들, 무리들은 과부에게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슬픔에 잠긴 과부를 위로해 줄 수 있었고, 과부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은 깊은 슬픔에 잠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만 보시지 않습니다.

- 2 예수님은 여인을 위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13-15절)
 - 답 예수님은 죽었던 청년을 살려 주셨습니다.

해설 과부의 슬픔을 보신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아들을 둔 관에 손을 대고 "청년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14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청년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병든 자가 병에서 놓임을 받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놓임을 받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적용

1 내가 겪었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었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10-4 이제는 우리 구주



디모데후서 1장 10절

Swing 작곡 이종윤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항상 보고 계시며, 우리 가정을 돌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